

## 참고 6.

###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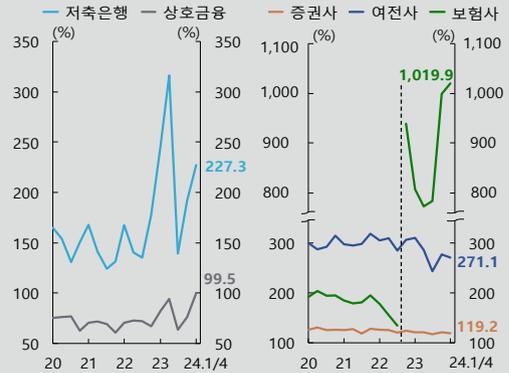
금융시장에서의 높은 금리수준 지속<sup>2)</sup>,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,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. 본고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가능성<sup>3)</sup>에 대비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말 기준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.

####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현황

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/4분기에 상승<sup>4)</sup>하였다.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은행과의 예금금리 격차가 축소 또는 역전<sup>5)</sup>되면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었으나 유동성부채 감소<sup>6)</sup>로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다.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24년 1/4분기 기준 227.3%로 감독기준(100%)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의 유동성비율은 99.5%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.<sup>7)</sup>

증권사와 여전사의 유동성비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, 2024년 1/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<sup>8)</sup>하였다. 보험사의 유동성비율은 22년 3/4분기중 134.2%까지 하락하였으나, 2022년말 감독당국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<sup>9)</sup>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, 특히 생명보험사의 유동성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(참고 6-1).

참고 6-1.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비율<sup>1)</sup>



주: 1) 유동성자산/유동성부채, 혹은 유동성자산/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 
자료: 금융기관 업무보고서

####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및 시나리오

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상황에서 예금인출, 채무상환 등으로 단기에 지급이 예상되는 현금유출 예상액(3개월 기준)과 대출 만기도래, 자산매각 등

- 1) 본고는 김민수·이병호·김동녘(시스템리스크팀)이 작성, 이종한(금융시스템분석부장)·최병오(시스템리스크팀장)가 검토하였다.
- 2) 금리(3년만기 국고채 기준)는 2021년 1.39%(연평균)이었으나, 금리인상이 시작된 2022년 3.20%로 상승하였으며, 2023년에는 3.57%로 상승하였다.
- 3) 2022년 하반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금융안전보고서 <참고5> 「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평가」를 참조하기 바란다.
- 4) 저축은행 : 23.4/4 192.1% → 24.1/4 227.3%, 상호금융 : 76.2% → 99.5%
- 5) 저축은행과 은행, 상호금융과 은행의 수신금리(1년 정기예금 및 정기예탁금 기준) 격차는 20년 0.77%p, 0.16%p, 21년 0.85%p, 0.05%p, 22년 0.5%p, -0.04%p, 23.3/4분기에는 0.13%p, -0.05%p로 축소 내지 역전되었다.
- 6) 2022년 4/4분기중 크게 늘어났던 예금 상당 부분의 만기가 2023년 하반기 중에 도래하면서 기존 예금의 중도해지 및 재예치가 증가하였다. 이에 따라 예금 만기가 늘어나고 유동성부채가 감소하였다. 자세한 내용은 금융안전 상황점검 보도자료(2024년 3월, 1.2장)를 참조하기 바란다.
- 7) 정부의 상호금융감독규정 및 새마을금고감독기준 개정으로 금년 말부터 상호금융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가 시행될 계획이므로 유동성비율이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8) 증권사 : 23.4/4 121.0% → 24.1/4 119.2%, 여전사 : 276.7% → 271.1%
- 9) 금융당국은 2022년 12월 '만기 3개월 이하 자산'으로 한정되었던 보험사의 유동성자산에 '활성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'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.

을 통해 유입가능한 현금확보액(3개월 기준)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. 그리고 현금유출예상액( $o$ ) 대비 현금확보가능액( $i$ ) 비율인 유동성확보비율( $lr$ )을 비은행금융기관 각 업권별로 산출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평가하였다.

$$\begin{aligned} \text{현금확보가능액 } I &= \sum_i A_i(1-l_i) \\ \text{현금유출예상액 } O &= \sum_j L_j r_j \\ \text{유동성확보비율 } lr &= \frac{I}{O} = \frac{\sum_i A_i(1-l_i)}{\sum_j L_j r_j} \end{aligned}$$

$A_i$  :  $i$ 번째 자산,  $l_i$  :  $A_i$ 의 매각손실률,  
 $L_j$  :  $j$ 번째 부채,  $r_j$  :  $L_j$ 의 유출률

예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과거 위기시 발생한 예금인출 규모를 적용하여 현금유출예상액을 추정하였다.<sup>10)</sup>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중 회수가능한 현금을 시산하여 현금확보가능액을 계산하였다. 한편,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만기도래 채무의 상환규모를 추정<sup>11)</sup>하여 현금유출예상액을 계산하였고, 보험사의 경우 직전 1년치 지급보험금<sup>12)</sup>이 단기에 유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. 보험사와 증권사의 현금확보가능액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 매각시 손실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, 여전사의 경우는 위기시 자산 유동화 규모를 추정하여 현금확보가능액을 계산하였다.<sup>13)</sup>

##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

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확보비율을 추정한 결과 전 업권이 100% 이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.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387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권 및 여전사가 각각 212.0%, 210.5%,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이 각각 142.2%, 128.8% 순으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. 보험 및 증권사는 유동성 위기시 가용할 수 있는 시장성 유동자산 보유 규모가 크고 여전사의 경우도 카드 자산, 할부금융자산 등 유동화 시장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확보비율이 200%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자산 대부분이 대출채권인 데다 이중 상당부분이 장기로 운용됨에 따라 단기에 가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증권·보험·여전사에 비해 유동성확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(참고 6-2, 6-3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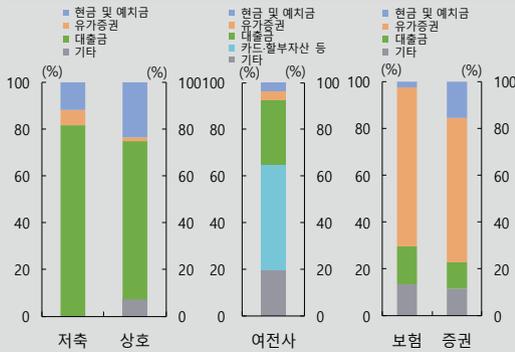
참고 6-2. 비은행금융기관 유동성확보비율



자료: 한국은행 시산

- 10) 2011년 저축은행 사태시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례를 참고하여 예금 금액대별로 5천만원 이하 예금은 20%, 5천만원 초과 예금은 50%의 유출률을 적용하였다. 다만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여 비조합원 예금에 대해서만 유출률을 적용하였다.
- 11)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현금유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(IMF,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, April 2009)를 참고하여 만기도래 채무의 차환율을 65%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.
- 12) 과거 유동성 위기 사례가 없었던 보험사의 경우 현행 유동성비율 규제가 3개월치 지급보험금의 유출을 상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가정을 설정하였다. 지급보험금에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,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,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.
- 13) 증권사 및 보험사의 보유자산 매각손실률은 바젤3의 LCR 규제 내용, 글로벌 금융위기시 손실률 데이터(IMF,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, October 2008) 등을 참고하여 자산별로 차등 적용하였다(국공채 0%, 금융채 15%, 주식 20%, 회사채 40% 등). 여전사의 경우 2003년 카드사태시 단기 자산유동화 실적(유동화 대상 자산의 10%)을 참고하여 현금확보가능액을 계산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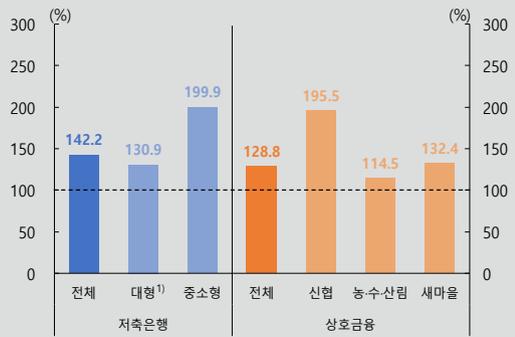
참고 6-3. 비은행금융기관 자산구성<sup>1)</sup>



주: 1) 2024년 1/4분기 기준  
자료: 금융기관 업무보고서

각 업권의 세부 기관별 유동성확보비율을 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별로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, 유동성확보 비율(199.9%)이 대형 저축은행(130.9%)보다 높게 나타났다. 상호금융은 업권별로 신탁(195.5%), 새마을금고(132.4%), 농·수·산림조합(114.5%) 순으로 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<sup>14)</sup>(참고 6-4).

참고 6-4.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유동성확보비율



주: 1) 자산 1조원 이상  
자료: 한국은행 시산

증권사의 경우 현금확보가 용이한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대형사(종합금융투자사사업자 포함)의 유동성 확보비율이 213.0%로 중소형사(201.0%)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.<sup>15)</sup> 보험사의 유동성확보비율은 생명보험사가 550.7%로 손해보험사(213.0%)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 이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유동화가 용이하고 매각 손실률이 낮은 국공채 및 특수채가 유동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<sup>16)</sup> 여전사의 경우 차환리스크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<sup>17)</sup> 캐피탈사의 유동성확보비율이 251.1%로 카드사(176.2%)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(참고 6-5).

참고 6-5. 증권·보험·여신전문회사 유동성확보비율



주: 1) 자기자본 1조원 이상,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포함  
자료: 한국은행 시산

14) 예수부채 대비 자산 비중(잔존만기 3개월 이내)을 시산해보면 저축은행 131%, 신탁 103%, 농·수협 및 산림협동조합이 73%로, 농·수협 및 산림협동조합이 타 기관대비 상대적으로 만기불일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형의 예수부채 대비 자산 비중(잔존만기 3개월 이내)이 184.8%로 대형(122.8%)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.  
15) 대형 증권사의 유동화자산비중은 48.7%,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화자산비중은 35.8%이다.  
16) 유동자산중 국공채 및 특수채 비중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35.9%, 손해보험사의 경우 25.3%이다.  
17) 캐피탈사의 경우 유동부채 비율이 12.2%로 카드사(19.3%)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.

## 평가 및 시사점

스트레스 테스트 결과, 모든 업권에서 현금확보 가  
능액이 현금유출액을 초과하여 유동성 상황이 양호  
한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 
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확보비율이 100%  
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증권·보험·여전사에 비  
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동성 대  
응능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. 특히 이들 기관은  
예금취급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운  
용의 만기불일치가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유동성 리  
스크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 이러한 상황을 반  
영하여 정부는 금년 말부터 상호금융에 대한 유동  
성비율 규제를 도입<sup>18)</sup>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  
화를 유도할 계획이다.

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  
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응능력을  
평가하고, 취약부분을 점검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  
요가 있다.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비상  
자금 조달계획을 점검하고, 유동성 점검 지표 대상  
범위 확대, 정교한 유동성 상황점검 지표 개발 등  
과 같은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. 또한 금융기관은  
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 유동성  
확보를 위한 신용공여 약정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  
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.<sup>19)</sup>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 
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가정의 현실성 및 모형의  
정합성 제고 등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정  
교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.

18) 정부는 상호금융감독규정, 새마을금고감독기준을 개정하여 유동성비율 규제(3개월 유동성비율 100%이상)를 금년말(새마을금고  
는 2025년 1월1일)에 시행할 예정이다.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,000억원 이상 조합은 100% 이상, 300억원 이상 1,000억원  
미만 조합은 90% 이상,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% 이상으로 유동성 규제 비율을 차등적용하되 1,0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시  
행후 1년까지는 90%를 적용할 예정이다.

19) 금융계열사, 타금융기관 등과의 Credit Line(당좌대출약정) 개설을 통해 가용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